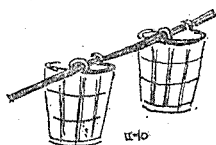


변소 이야기



박 대 인
(Edward W. Poitras)

대학교 다닐 때 나는 큰 부자집 아들인 「툼」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. 나는 고학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항상 재미있게 놀면서 안락한 생활을 했다. 하루는 그 친구가 있어버릴 수 없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. 우리는 어떤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는 「불쾌한 일을 나는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이다」라고 했다.

몇년후에 나는 한국에 오게되었다. 한국 사람의 변소에 대한 취급을 볼 때 바로 그 친구의 말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기억하게 되었다. 한국에서 과연 변소를 존제하지 않는 것 처럼 취급 하려고 하는 전통이 있는 모

양이다.

어떤 때는 변소라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. 몇년전에 먼 섬에 있는 산골까지 찾아간 일이 있었다. 도착한 후 얼마 안되어서 자연히 변소의 위치를 물어보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「뒤뜰에 있어요」라고 대답을 했다. 찾아가 보니까 틀 한가운데 독 하나가 땅에 파묻혀 있었다. 사용을 하려고 할때에 동리의 아이들이 건부와서 나를 둘러싸며 구경 하기 시작했다. 잊을 수 없는 곤란의 순간이었다.

현대화된 생활만 빼 놓고는 한국의 변소 처리가 그것을 의면 하려는 것과 같다. 보통 다방, 음식점, 사무실 같은 공용 건물을 방문 해도 마찬가지로. 변소를 들리는 시간을 될 수 있는대로 오래 미루고, 할 수 없는



시골서 변소에 갔다가 혼났다고 말하는 필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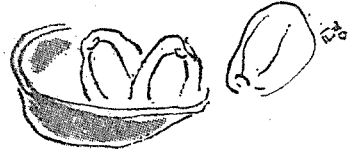
경우에 그 어려운 순간을 빨리 끝나도록 하게 된다. 결국 변소는 어디가든지 그 집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장소가 된다.

그 반대로 어떤 나라에 가면 변소가 너무나 화려한 자리가 될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잘사는 주택에는 변소 바닥에 융단을 깔고, 수세식의 시설 뿐만아니라 많은 경우에 전화나 텔레비, 전축 스피카 등의 복잡한 기계까지도 변소 안에서 준비를 한다.

아마 변소에 관한 중용(中庸)을 발견해야 될 것 같다. 변소를 어마어마하게 장치를 준비 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것을 사람이 사는 집의 중요한 일부분 인것을 인정 해야 될 것이다. 사람의 변소 준비와 사용을 보면 그들의 건강상태와 문명 전체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 된다. 한국집의 부엌을 개량 하면서 동시에 변소도 깨끗한 위생적인 장소로 고쳐야 될 것이다. 변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건강에 위험하다. 건전한 생활은 바로 적당한 변소 처리에서부터 시작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.

〈필자=갈리교 신학대학 교수·미국인〉

떡다 남은 음식



곽 대 희

우리민족 고유의 한국음식은 혀끝이 짜르르하는, 정말로 식도락가(食道樂家)들의 도락을 만끽시켜주는 음식이 특징이다. 서양음식의 그 떨진 스프에 양념안된 고깃 덩이를 절근절근 썰는 그맛보다는 갖은 양념에다 숯불구이 우리의 불고기는 아마도 세계인구의 회를 동하게하기에 족하리라. 세계요리의 으뜸이란 중국요리의 기름투성이 돼지고기보다는 무궁무진한 조화숙의 우리 궁중요리(宮中料理)의 그 감칠맛이란 나에겐 더할 수 없는 매력의 하나이다.

우리 한국음식이 세계최고라는 자부심은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도 변할 수는 없다.

그러나 좋은맛을 갖인 우리의 식사